

“이 공양 드시고 불제자 되세요”

‘따뜻한 밥상’ 전하는 금선사 일명 스님

8월 13일 가만히 서있기도 힘든 더운 날, 광주 송정시장에 5일장이 열렸다. 장날을 맞아 분홍색 앞치마를 입은 ‘자비나눔의 보살’들이 나타났다. 장날 하루 전부터 준비한 400여 개의 ‘따뜻한 밥상’을 전하는 손길이 바빠졌다.

“워매, 정말 감사하요. 날씨도 더운데 요리케 맛난 도시락을 먹으니 너무 좋구만이라잉.”

“따뜻한 밥상” 도시락을 전해 받은 김남순 어르신(79, 여)은 연신 감사의 말을 전한다.

광주광역시에 위치하지만 옛 풍경이 남아있는 송정시장은 시골 뒷밭에서 재배한 야채를 갖고 나와 판매하는 어르신들이 유독 많다. 어르신들은 하루 2-3만원 용돈을 벌기 위해 끼니를 거르는 일도 많다. 이런 사정을 아는 금선사 자비봉사단은 작년부터 1년째 노점상 어르신들에게 음식을 전달하고 있다. 이색은 장날이면 노점상 어르신들이 먼저 스님과 자비봉사단을 기다린다.

자비봉사단을 이끄는 일명 스님은 “동진출가를 해서인지 노인을 보



광주 금선사 자비봉사단은 장날이면 광주 송정시장을 찾아 노점 행사 어르신들에게 도시락공양을 올린다.

면 부모 같이 한 끼 공양이라도 올리고 싶었어. 매일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처럼 어려운 노인들에게 공양을 올리면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이 공양을 드시고 다음 생에는 불제자가 되어주세요’라고 기도할 뿐이지요.”

평소 소외계층 노인들을 위한 봉사를 계획하던 스님은 사찰 인근의 송정시장이 머리에 떠올랐다. 그 후 스님은 신도들에게 적극적으로 봉

사를 권유했다. “뿌린 씨앗이 어디 가겠어요. 오늘 공덕 내가 못 받으면 내생에 자손이 받게 되거든요.”

스님의 적극적인 활동 때문일까. 지금은 26명 자원봉사자의 헌신적 활동과 심야반환 후원금과 물품 후원으로 운영된다.

자비봉사단의 따뜻한 밥상 나누기는 2009년 광주지역 불교신행단체인 자비신행회(이사장 이화영)와



일명 스님

함께 시작했다. 7월 16일에는 봉사 1주년 기념으로 무료급식에 참여했던 자원봉사자와 신도, 후원자들이 모여 지난 1년간의 활동보고와 포상, 다짐의 시간 등을 보냈다.

일명 스님은 향후 좀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눔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소외계층 노인들을 방문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은 스님과 금선사 대중의 바람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폐교된 덕오초교 복지타운 건립 해인사자비원

폐교를 불교계 사회복지시설로 탈바꿈시키고 있어 눈길을 끈다.

사회복지법인 해인사 자비원 진주시부(지부장 성공)는 진주시 집현면 덕오리의 폐교인 덕오초교에 복지타운을 건립하고 있다.

복지타운에는 지역아동 및 소외계층을 위한 도자기만들기 체험장, 천연염색, 승마체험장, 다문화센터, 작은도서관, 장애아동의 재활치료, 재활승마치료 등 다양한 복지체험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

해인사 자비원 진주시부는 8월 28일 복지타운 건립을 알리는 ‘다문화 음식축제’와 ‘도자기체험장’을 열었다. 오프닝에서는 베트남, 태국, 필리핀, 중국, 네팔, 일본 등 10개국의 음식을 만날 수 있는 다문화 음식 축제가 열렸다. 축제 기간 중에는 대중가수의 공연과 사물놀이, 통기타, 전자 바이올린 연주 등이 다양한 공연도 함께 진행됐다. 성공 스님은 “2009년 3월에 폐교된 덕오초교에 복지타운을 건립해 지역주민에게 도움 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055)763-1663

이재진 부산지사장

동국사 창건 100주년 기념 법회 행사 전 귀한 토란꽃 피어나



국내 유일의 일본건축양식 사찰로 유명한 군산 동국사가 올해로 창건 100주년을 맞았다.

국내 유일의 일본건축양식 사찰인 군산 동국사(주지 총명)가 창건 10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동국사는 10월 26일 창건 100주년을 맞아 2008년 발견된 복장물 재봉안 불사와 중수불사를 마무리한다. 또 동국사의 100주년을 재조명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동안 국가 기록원 등을 통해 수집한 과거 일제 강점기의 사진과 기록물을 정리한 책자의 발간 및 사진전을 개최할 계획이다.

1909년 일본 조동종 우치다 선사가 창건한 동국사는 일본 에도시대의 건축양식과 일제 강점기 우리민족의 수난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국내유일의 일본식 사찰이다. 2003년 국가등록 근대문화재(64호) 지정받았으며, 2008년 석가삼존불에서 300여점의 유물이 발견됐다.

한편 창건 100주년 행사 준비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동국사에 100년 만에 한번 꽃을 피운다는 토란이 노란 꽃대를 2개나 올리며 꽃이 피어 화제가 되고 있다. 관상용과 식용을 겸해 화단에 심은 토란은 노란꽃대를 2개나 올리고 있어 토란꽃을 보고자 동국사를 찾는 사람

들이 줄을 잇고 있다. 토란은 여러해 살이 식물로 줄기나 뿌리에 영양분을 저장하는 습성이 있어 꽃을 피우는 일은 매우 드물다. ‘100년만에 피는 꽃’이란 별칭으로 불리고 있으며 ‘토란꽃이 피어난 장소나 꽃을 본 사람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속설이 있다.

동국사 거사원회 신도는 “속설의 신빙성을 차치하더라도 창건 100주년 기념행사를 앞두고 귀한 토란꽃이 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부처님의 가피가 아니겠느냐”며 “신도들 모두 동국사에 경사가 닳다며 기뻐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100년에 한번 꽃을 피운다는 토란꽃이 동국사에 피었다.

부산 생명나눔 메트로 부산과 업무협약 체결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와 메트로 부산(사장 문형만)은 8월 25일 부산 선암사에서 업무 제휴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장기기증 결연과 환자치료비 지원 사업 등을 펼치는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는 협약을 계기로 ‘메트로 부산’과 함께 장기기증 희망자 등록 및 홍보, 난치병환우 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협약식에서 메트로 신문은 생명나눔의 집 활동에 동참해 생명나눔 운동에 협조를 약속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4대강 생명에게 가혹한 일하고 있다”

문수선원, 4대강 반대 10만배 정진 입재 및 음악회 개최

정부의 정책들이 속속 드러난 가운데 영산강 승촌보에 설치된 문수선원(선원장 법선)은 8월 22일 승촌보 현장에서 ‘영산강 못 생명에게 참회와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한 10만배 정진기도 입재 및 음악회를 개최했다.

10여 명이 참여한 정진기도는 실무자나 방문자가 4대강 사업으로 죽어가는 못 생명에게 매일 108배 참회기도를 올리는 프로그램이다.

승촌보 현장을 보면서 10만배 정진기도 입재에 참여한 이승희 불자는 “4대강 공사로 인해 지난 수백만 년 터전으로 살아온 생명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준다는 생각을 하니 너무 가슴 아프다. 인간도 지진과 같은 재해로 집을 잃고 가족을 잃으면 힘든데, 4대강에 있는 생명에게 우리는 너무 가혹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며



전국시사문화협회 회원들이 마을입구 도로변에 4대강에 대한 풍자 만화를 걸고 있다.

“정권에서 빨리 참회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을 입구에는 전국시사문화협회 회원들의 4대강 반대 그림전과 설치미술 등이 선보였다. 여기에 문수선원은 영산강 사업에 대한 다양한 활동들을 전하는 ‘홀러라 영산강’ 8월 회보를 만들었다. 회보에는 영산강 이

야기를 비롯해 4대강사업, 불교계 소식과 문수선원 소식이 담겨있다.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의행 씨는 “향후 문수선원은 영산강 현장의 모니터링과 방문단 인내, 108배 정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장애아동·가족 위한 템플스테이

해남군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지웅)은 8월 20-22일 2박 3일 동안 해남 대흥사(주지 법가와 인근 지역에서 ‘산사에서 아름다운 휴가’라는 주제로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22명, 중증장애 아동 28명, 인솔자 및 자원봉사자 73명이 참여한 가운데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평소 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느라 신체적, 정신적으로 삶의 여유가 없는 부모들에게 장애 아이들과 떨어져서 사찰과 문화체험을 하는 ‘아름다운 휴가’를 선사했다. 바깥 나들이가 쉽지 않은 장애 아동들에게는 불교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템플스테이는 중증장애 아동들에게 해남지역 유적지 관광, 불교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돼 큰 호응을 받았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성공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개업 선물로도 품격!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해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혼들어 문앞에서 방해하게 만들고, 들어왔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첫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귀를 몰라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 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 있어 풀위가 있고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고 고리와 수습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사찰스님 20% 할인)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중고 불경기도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편을 한지붕 밑에서도 풍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거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원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당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용실,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사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가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을 들어오지 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묘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 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 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5,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용띠, 쥐띠, 원숭이띠, 드는 삼재시작 조심

닥쳐올 삼재화를 미리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2010년 드는삼재 2011년 목는삼재 2012년 나가는삼재 용띠, 쥐띠, 원숭이띠 중생들은 2012년 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 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소띠, 돼띠, 닭띠 삼재기간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판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책임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삼재가 시작된 용띠, 쥐띠, 원숭이띠 생들은 드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중 삼재화와 삼재 액린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 중 무사 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 드리며 지갑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가격 : 45,000원 (사찰 공금 가격 별도 상담) 문의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